

2016년 6월 20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 1차 저점

• 중화권 증시 동향

브렉시트 우려 완화로 중화권 증시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블루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헬스케어-의료기기, 에스원, 현대백화점, 인터파크, 한국항공우주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글로벌주식 | 이수정 ☎ 3276-6252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9.06	1,972.03	1,968.83	1,951.99	1,953.40	
	등락폭	-38.57	-7.03	-3.2	-16.84	1.41	
	등락종목	상승(상한)	156(0)	259(1)	324(3)	148(1)	440(2)
		하락(하한)	675(0)	546(0)	460(0)	677(0)	372(0)
	ADR	87.54	85.43	85.29	83.41	87.36	
	이격도	10 일	99.13	98.76	98.67	97.97	98.20
		20 일	100.13	99.76	99.60	98.76	98.81
	투자심리	5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43	440	377	439	480
	거래대금	(십억 원)	4,680	5,010	4,695	4,452	4,431
코스닥	코스닥지수	695.61	692.94	694.66	680.25	678.86	
	등락폭	-11.2	-2.67	1.72	-14.41	-1.39	
	등락종목	상승(상한)	252(2)	426(2)	533(3)	186(3)	533(1)
		하락(하한)	842(0)	646(0)	538(0)	920(2)	517(0)
	ADR	102.18	101.71	101.89	99.74	99.51	
	이격도	10 일	99.24	98.85	99.15	97.36	97.48
		20 일	100.07	99.75	100.00	97.95	97.76
	투자심리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821	810	869	1176	1235
	거래대금	(십억 원)	3,493	3,484	3,422	4,583	3,83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01.6	1,318.9	748.9	265.7	78.9	137.4	48.2	21.7	197.0	72.9
	매도	2,308.9	1,423.2	689.6	191.7	84.8	137.7	77.2	21.1	177.0	20.6
	순매수	-7.4	-104.3	59.3	74.0	-5.9	-0.3	-29.0	0.5	20.0	52.3
	6월 누계	-679.2	1,118.6	-502.2	429.8	-199.2	-587.2	-96.2	-143.7	94.2	62.8
	16년 누계	-2,885.0	3,972.5	-1,922.0	-670.4	2,139.4	-2,095.3	-941.6	-683.0	329.2	834.4
코스닥	매수	3,482.5	259.4	91.2	26.8	7.9	22.4	8.5	2.7	22.9	20.0
	매도	3,477.6	228.8	118.9	31.3	12.1	23.8	18.5	2.2	31.0	27.6
	순매수	4.9	30.5	-27.7	-4.6	-4.1	-1.4	-10.0	0.5	-8.1	-7.6
	6월 누계	463.8	-67.5	-190.8	24.0	-23.0	-111.4	-58.7	-0.1	-21.5	-205.5
	16년 누계	2,971.7	147.5	-2,091.4	-218.9	-119.8	-678.4	-358.8	-105.5	-610.3	-1,027.7

Chart of the Week : 1차 저점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3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4%P

- ▶ 브렉시트 관련 금융시장의 컨틴전시 플랜 진행중, 이제부터는 매도 실익 없는 구간
- ▶ V2X 등 변동성 지수와 독일/미국 장기채 금리 등은 우려가 기반영됐음을 시사
- ▶ 설사 브렉시트 찬성표가 과반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충격 최소화를 위한 긴 협상 필요

■ 브렉시트 : 금융시장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파운드화 1주 변동성
 : 2008년 리만 파산 당시를
 넘어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영국의 EU 탈퇴 투표가 23일(목)로 다가왔다. 지난 주 노동당 콕스 의원 피살 이후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선불리 결론내긴 어려운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주 금요일 파운드 환율(1 파운드 당 달러)의 1주 짜리 옵션 내재 변동성은 2008년 리만 파산 당시를 훌쩍 넘긴 상태다. 파국에 대비해 옵션 거래를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그러나 상당수 영국 은행
 비상계획 가동
 : CDS 프리미엄 안정적

23일 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표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를 대비해 HSBC, Barclays 등 주요 은행들은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견해 표명이 선거자금법(campaign finance law)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고객 이탈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실제로 BoA의 경우 고위직 임직원들에게 고객과의 대화시 브렉시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은행들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을 수행했고, 시장성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현금성 자산도 풍부해 당장의 금융시장 교란 요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영국 주요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2월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파운드 환율 1주 옵션 내재 변동성 : 2008년 리만 파산 당시를 넘어서



자료: 한국투자증권

EEA 지역의 패스포팅 권리
탈퇴 협상 완료될 때까지
유지 : 당장의 금융거래
영향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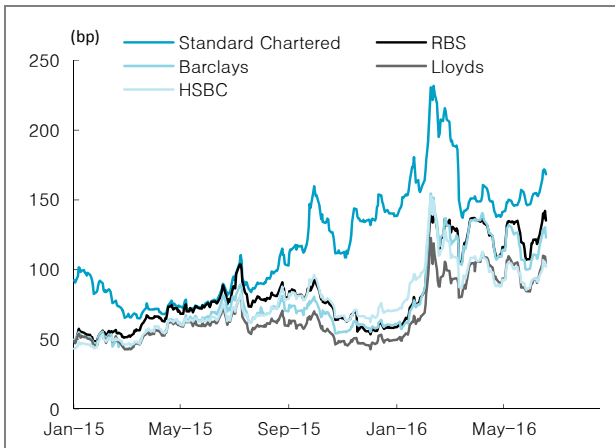
또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에서 인가되어(authorized) 영업하고 있는 금융 회사가 EEA(유럽경제지역)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패스포팅(Passporting) 권리는 탈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증가하나 당장의 금융시장 거래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 변화는 없다. 영국 CDS 프리미엄이 지난 2월 당시 고점까지 급등했지만 투표 이후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표 1> 주요 영국은행 부문별 자금조달 비중

	Barclays	Lloyds	RBS	HSBC	SC
Repo	4%	1%	7%	4%	4%
도매(1년 이하)	9%	6%	7%	6%	15%
도매(1년 이상)	14%	14%	8%	8%	9%
도매금융 비중	28%	22%	23%	19%	27%
예금	62%	70%	66%	71%	64%
주식	11%	8%	11%	10%	9%
총 자금조달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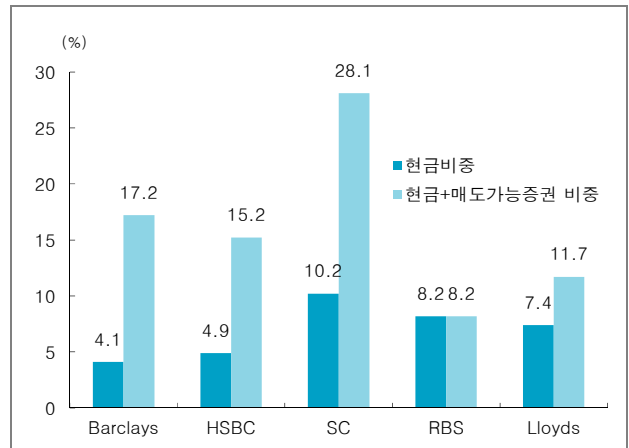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그림 2] 영국 주요 금융기관 CDS 프리미엄 (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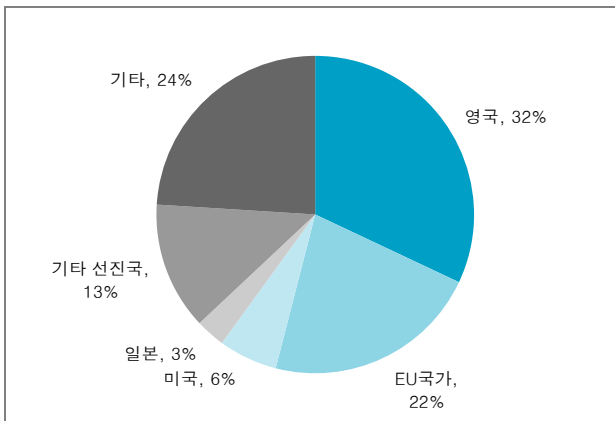
주 : Bloomberg

[그림 3] 영국 주요 금융기관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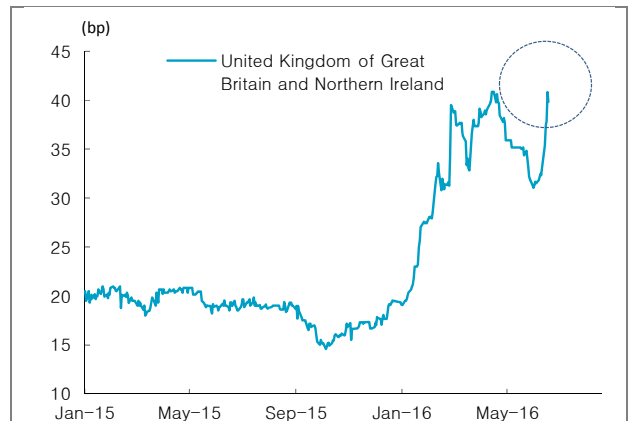
주 :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그림 4] 영국에 소재한 국가별 은행 비중



주 :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그림 5] 영국 CDS 프리미엄 (5Y)



주 : Bloomberg

파운드화 환율 이미
중기 지지선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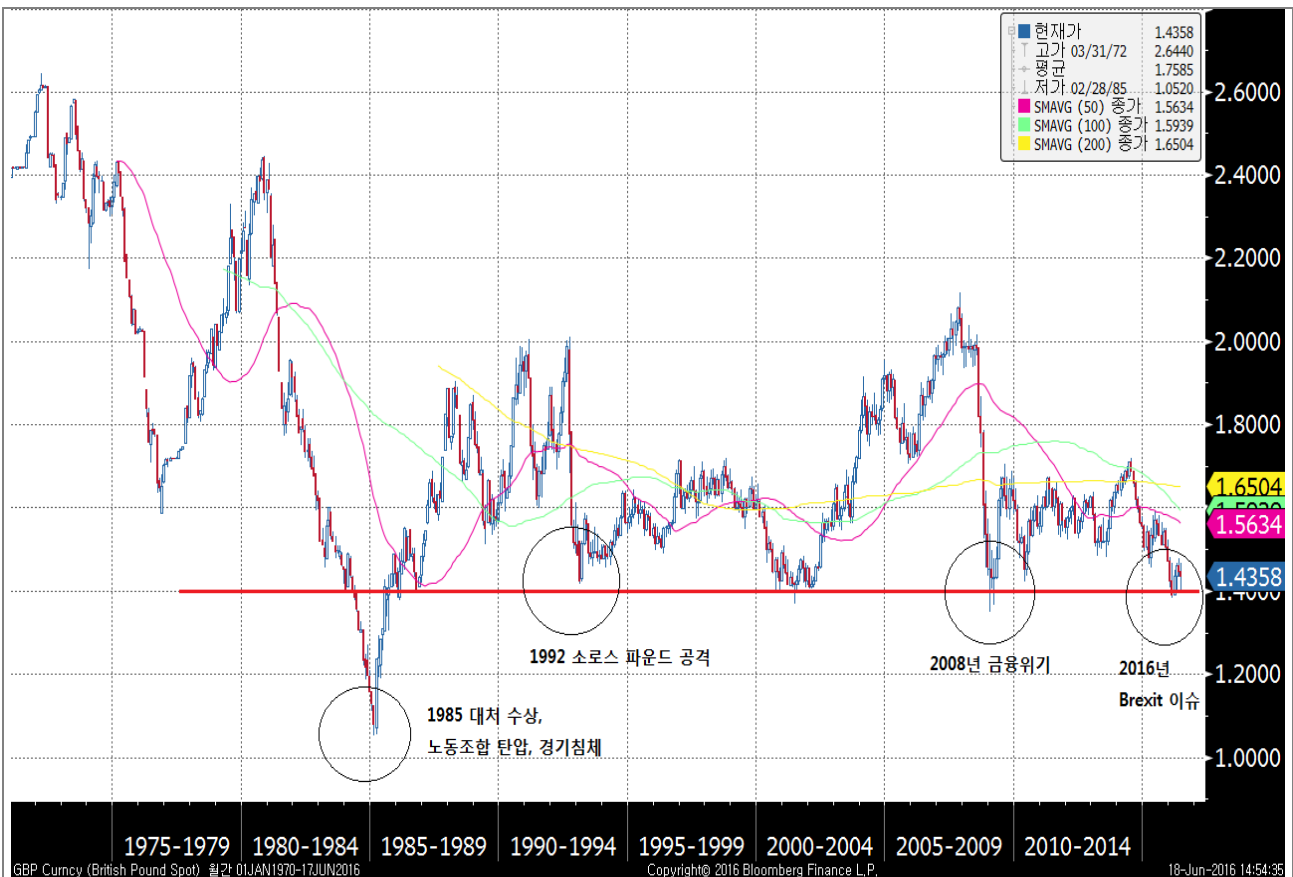
이미 파운드화 환율은 중기적인 중요 지지선(key level)까지 하락했다. 현재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4까지 떨어져 1985년 대처 수상의 노동조합 탄압시기, 1992년 소로스의 공격으로 인한 파운드화 평가절하,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파운드화 약세 당시 수준이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긴급 유동성 공급
: 금리 조정 가능성도

또한 영란은행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6월 14일, 21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6개월짜리 특별 긴급 유동성 공급(ILTR; Indexed Long-term Repo)에 나설 계획이다. 영란은행은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당시에도 추가 ILTR 시행을 준비했지만 투표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난 주 14일(화) 1차 ILTR이 시행되었는데 25억 파운드가 응찰되어 지난 3개월 평균(30억 파운드)에 비해 규모가 적었다. 미루어보건대 상당 수 금융기관이 비상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5월 물가보고서 발표 당시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금리인상(파운드 가치급락 방어, 인플레이 우려 제어)과 금리인하(금융시장 경색 완화) 양방향의 유인이 모두 존재해 어느 쪽으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 브렉시트 우려가 확산될 경우 긴급 통화정책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ECB, FRB와 통화스왑 또한 고려 대상이다.

[그림 6] GBP / USD 환율 장기 차트 : 이번 사이클의 저점은 1.1인가 1.4인가



자료: Bloomberg

아마도 투표 결과가 브렉시트 지지로 나올 경우 당일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 V2X 등 유럽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이미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상승해 관련 우려가 기반영향을 가능성이 높고 2) 탈퇴의 형태와 시기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EU는 2015년 기준으로 영국 수출 비중의 43.7%, 수입 비중의 53.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데, 탈퇴시 EU 뿐만 아니라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여타 국가(53개 경제권)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이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U 역시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에 달하는 상황이라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EU의 관계는 ▲ EU 입법 투표권은 없지만 EEA 가입국 지위가 유지되는 노르웨이형이나 ▲ EEA 탈퇴 후 개별국과 무역 관련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스위스/캐나다 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표 2> 영국의 주요 수출산업 및 EU 비중 (2015년 기준)

품목	수출금액(십억유로)	EU 비중(%)
상품	185.1	47.0
- 자동차	43.6	43.7
- 석유제품	25.5	70.6
- 의약	33.3	42.6
서비스	311.5	39.4
- 금융서비스	69.3	44.3
- 여행서비스	38.4	42.6

주: 국제수지 기준, 상품의 세부품목은 무역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재인용, Eurostat

[그림 7] V2X (유럽 주식 변동성 지수) : 역사적 고점 수준인 40까지 슈팅



자료: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우리는 1차 저점은 지나갔으며 이제부터의 매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면서 이미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두려움을 사고, 변동성을 팔 때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8]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 2015년 최저점까지 하락, 안전자산 선호심리 과도



자료: Bloomberg

[그림 9]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 장기 지지선까지 하락, 안전자산 선호심리 과도



자료: Bloomberg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 주말 대비 2.04% 하락한 1,953.40pt에 마감했다. FOMC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해외 시장의 매도 압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말 대비 약 1bp 상승했다.

위험회피 현상이 재차 강화되면서 전기전자(+0.6%)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그나마 통신(-1.4%), 종이목재(-1.5%) 등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제약(-9.6%) 등 높은 밸류에이션의 산업이나 건설(-6.6%), 철강(-5.8%), 기계(-5.5%) 등 시클리컬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에스원(+2.5%), 한화케미칼(+2.1%)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4%) 등 반도체주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분식 회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15% 급락했고, 쿠팡전자의 경우 자사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이슈로 10% 이상 하락했다.

에너지와 소재의 이익 추정치가 오랜만에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된 가운데, IT가 이전 주에 이어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7.65	-7.65	5.24	-0.10	1.78	6.83	0.83	
소재	-4.67	-4.09	0.48	-0.03	1.89	9.21	0.72	
화학	-3.62	-4.29	-5.11	-0.05	2.27	8.80	0.96	
금속 및 광물	-1.65	-2.63	1.38	0.50	0.78	11.54	1.16	
산업재	-4.91	-3.33	-5.11	0.32	1.28	13.49	0.96	
자본재	-5.45	-3.59	-4.66	0.48	1.72	13.28	0.91	
건설	-6.35	-5.45	2.83	0.54	2.26	8.70	0.72	
조선	-9.43	1.79	6.50	2.47	9.53	11.73	0.53	
상업서비스	1.19	1.80	-4.65	0.31	-0.59	21.09	2.78	
운송	-2.49	-2.83	-8.06	-0.77	-1.26	13.83	1.15	
경기소비재	-2.71	-2.34	-2.83	-0.17	0.51	10.05	1.02	
자동차/부품	-2.32	0.19	-3.91	-0.16	0.37	6.30	0.66	
내구소비재/의류	-3.22	-3.18	1.61	0.02	1.07	21.94	3.26	
소비자 서비스	-2.93	-5.36	-3.01	0.00	0.48	17.74	2.60	
미디어	-2.64	-4.64	-11.10	-0.10	1.05	16.32	1.62	
유통	-2.82	-7.18	-3.85	-0.63	0.50	13.47	0.75	
필수소비재	-3.79	-7.00	-3.48	0.40	-0.06	16.18	1.58	
음식료/담배	-3.74	-9.43	-3.77	0.41	-0.10	16.18	1.61	
생활용품	-6.83	-1.34	-1.33	-	-	-	-	
의료	-8.01	7.51	15.77	0.27	0.48	34.20	2.86	
제약/바이오	-8.03	7.58	15.74	0.27	0.48	34.20	2.86	
금융	-4.83	-3.48	-5.92	-0.01	0.11	7.98	0.54	
은행	-5.19	-2.24	-1.95	0.01	0.41	6.25	0.40	
증권	-5.86	-4.48	-9.28	-0.08	-0.91	8.95	0.65	
보험	-4.14	-5.51	-11.32	-0.02	-0.03	10.25	0.78	
IT	0.14	8.31	6.08	0.41	3.28	10.87	1.09	
소프트웨어	-3.92	-4.72	-6.92	0.21	2.28	22.41	3.09	
하드웨어	-0.66	4.02	-11.70	-0.59	3.02	16.02	0.91	
반도체	1.21	12.55	10.85	0.64	3.54	9.53	1.03	
디스플레이	0.04	-1.44	-3.83	0.82	9.69	20.58	0.71	
통신서비스	-1.48	-3.99	0.12	0.07	0.75	10.85	0.89	
유틸리티	-5.70	-3.90	10.78	-0.02	1.07	4.97	0.51	

주: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6월 17일 증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증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국내 펀드 시장 동향

지난 주에 이어 모든 주식형 펀드군에서 자금 유출이 관찰됐다. 인덱스 주식형 펀드군에서의 자금 유출폭은 급감했으나 일반 주식형과 배당 주식형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금 유출을 보인 펀드 수가 유입을 보인 펀드 수보다 많았던 가운데 중소형, 밸류 등의 테마를 가진 펀드들에서 소규모의 자금 유입세가 관찰됐다.

〈표〉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원)				설정액 증감(억원)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16-04-01	243,891	38,142	83,289	56,713	-1,212	63	-3,613	-645
2016-04-08	243,252	38,230	83,339	56,595	-638	88	50	-118
2016-04-15	243,117	38,227	81,645	56,456	-135	-3	-1,694	-139
2016-04-22	240,408	37,986	79,661	54,949	-2,709	-232	-1,985	-1,507
2016-04-29	238,296	37,915	78,120	54,447	-2,112	-80	-1,541	-502
2016-05-04	237,709	37,902	77,420	54,386	-587	-13	-700	-61
2016-05-13	237,478	38,003	77,040	54,562	-231	100	-380	176
2016-05-20	236,853	37,924	75,508	54,597	-625	-79	-1,532	35
2016-05-27	236,853	37,924	75,508	54,597	-503	-58	912	326
2016-06-03	235,411	37,781	75,898	55,097	-939	-84	-523	174
2016-06-10	233,668	37,573	73,785	54,647	-1,744	-208	-2,113	-450
2016-06-17	231,676	37,430	73,691	53,858	-1,992	-143	-94	-789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KIN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36	7,396
	KB자산운용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 2 Class	국내	132	6,246
	KB자산운용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2	국내	115	2,231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국내	79	165
	삼성자산운용	삼성중소형FOCUS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2)	국내	60	1,010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배당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50	800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국내	27	12,979
	삼성자산운용	↳삼성코리아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5)	국내	1	1,036
	설정액 감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585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65	2,964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279	6,877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218	29,833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89	3,454
한화자산운용		한화ARIRANG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48	4,893
슈로더투신운용		슈로더유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147	10,317
KB자산운용		KB마이플랜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126	12,879
KB자산운용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국내	-108	2,244
제이피모간자산운용		JP모간러시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101	3,661

주: 2016년 6월 16일 기준, 설정원본 1천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같은 펀드 내 자금 유출입 규모가 가장 큰 클래스만 포함
 다만 설정일이 2014년 이후일 경우 설정원본이 1천억원 이하라도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지난 주 한국 관련 4대 펀드는 총 10.6억달러의 순유출세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순유입 이후 순유출로 돌아섰다. 선진국 펀드군은 약 3.6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으나, 신흥국 펀드군은 14.2억달러의 순유출세를 보였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재차 부각되면서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는 순유출 기조로 돌아섰고, 신흥국 채권 역시 순유출 기조를 보였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163,965	1.0%	403.6	-54	9,797
	Pacific	48,689	6.3%	-48.4	-1,265	-2,057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32,280	14.3%	-1,038.9	-1,724	-12,669
	Global Emerging	394,323	10.0%	-380.5	67	1,218
	Latin America	21,315		-193.0	-497	579
	Europe/Middle East/Africa	38,824		-275.4	-598	-884
주요 국가 및 국가군	Japan	305,413		643.9	-74	-1,425
	Western Europe	1,112,703		-4,899.4	-11,376	-45,316
	United States	4,026,966		1,101.1	-832	-70,882
	China + Greater China	107,837		-399.5	-282	-2,994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6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825,644	-1,034	12,570	75,548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82,681	-180	300	5,674
	- EM 경화(\$) 채권	119,112	189	1,317	5,061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20,953	-280	-822	2,101
	- EM Blend 통화 채권	42,616	-89	-194	-1,489
글로벌 채권 펀드		1,247,975	246	5,478	1,052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70,120	-3,150	-3,266	-253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824,867	2,050	10,057	69,075
	- Municipal	395,318	824	3,509	18,475
	- Floating Rate	78,426	-79	535	-3,848
	- Inflation Protected	58,509	317	54	3,599
	- Inter. Term Corp.	35,486	306	334	2,537
	- Inter. Term Funds	476,347	554	5,036	25,376
	- Inter. Term Gov.	34,378	6	375	2,513
	- LT Bond	6,806	91	140	227
	- LT Corp.	53,978	-439	56	3,709
	- LT Gov.	25,467	-9	-423	4,042
	- MBS	106,456	285	1,095	10,915
	- ST Bond	224,119	-159	-670	-2,354
	- ST Corp.	36,835	140	294	371
	- ST Gov.	37,993	174	-1,130	-1,017
	- Total Return	254,749	39	854	4,530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562,852	-23,357	-4,435	-86,775
	- MMF 채권펀드	3,692,633	-22,289	-2,014	-74,158
	- Balanced Funds	870,219	-1,068	-2,421	-12,617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요 증시 일정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日> 5월 수출 YoY (n/a, -10.0%, -10.1%)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55, 5.45)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65, 619) Powell 연준이사 연설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1.4, 51.5) 독일> 6월 마켓 독일 제조업 PMI (n/a, 52.0, 52.1)	영국> Brexit 국민투표(한국 시간) 美> 6월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 (n/a, 94.1, 94.3) Kaplan 연준이사 연설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美> 1분기 GDP QoQ 잠재 (n/a, 1.0%, 0.8%)	美> 5월 개인소득 (n/a, 0.3%, 0.4%) 5월 PCE MoM (n/a, 0.1%, 0.2%) 5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1.0%, 5.1%)	韓> 5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2.8%)	韓> 6월 수출 (n/a, n/a, -6.0%) 6월 수입 (n/a, n/a, -9.3%) 美> 6월 ISM 제조업지수 (n/a, 51.3, 51.0)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n/a, 49.2)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n/a, n/a, 50.1) 日>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9%)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브렉시트 우려 완화로 중화권 증시 강세

- ▶ 중국 증시는 0.4% 상승, 브렉시트 우려 완화와 구조조정 가속 기대감에 강세
- ▶ 홍콩H지수는 0.9% 상승,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역내의 환율의 안정적 흐름에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4% 상승,
석탄, 헬스케어, 소재, 증권,
화학비료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4% 상승한 2,885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상승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강세를 유지했으나 장 막판에 보험권에 진입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1,954억위안으로 직전일과 비슷했다. 영국에서 EU 잔류를 주장한 하원의원이 숨지면서 국민투표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이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들의 인수 합병들이 잇따르는 등 국유기업 개혁들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대감들이 부각됐다.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사흘째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탄, 헬스케어, 소재, 증권, 화학비료, 항공, 양조, 통신 등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차스닥지수도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1% 급등한 2,123p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12억 위안을 매수하면서 최근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9% 상승,
소비재, 소재, 통신서비스,
에너지 등의 모든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0.9% 상승한 8,486p로 마감했고, 주간단위로는 4.1% 하락했다. 직전일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급등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후에 들어 아시아 증시 약세에 동반하며 장중 반등폭을 줄여나갔다. 대외 불확실성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역내외 위안화 환율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해외 시장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비재, 소재, 통신 서비스, 에너지 등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6/17(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885.11	0.43	-1.44	1.46	-18.48
심천종합	1,900.74	0.81	-0.93	4.74	-17.68
차스닥	2,122.89	1.02	-2.91	1.99	-21.78
홍콩H	8,485.87	0.90	-3.92	0.71	-12.16
Shibor 7일물 금리(% , %p)	2.35	0.13	0.13	0.64	-0.38
Shibor 1개월 금리(% , %p)	2.86	0.19	0.60	0.85	-4.76
중국국채 3년물(% , %p)	2.55	-0.40	-0.36	2.32	-0.52
위안/달러 고시환율	6.5795	0.09	0.31	0.91	1.32
역내 위안/달러	6.5900	0.02	-0.42	-1.06	-1.46
역외 위안/달러	6.5995	-0.03	0.07	-0.79	-0.47

주: 17일 오후 5시 1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혼조세로 마감

- 미국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가 일부 완화된 데 힘입어 6거래일만에 상승 . 1,96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이 닷새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 매수세가 더해지며 장중 1,970P를 회복 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매도세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세로 마감. 코스닥도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장중 1% 이상 급등했 으나, 기관 매도세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678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버행 리스크 해소 및 저평가 분석에 두산엔진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회사 프라코의 상장예비심사 통과 소 식에 삼보모터스가 신고가를 경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흑자전환 전망에 아이티센이 급등했으며, 대규모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 기대감에 이화전기가 상한가를, 종속회사인 아이아디, 이트론은 동반 강세를 보임. 또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소식에 대호에이엘을 비롯해 철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부 화장품주들이 강세 를 보임. 반면, 공기청정기 필터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쿠푸전자가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두산엔진(082740) ▶3,580(+7.03%)	저평가 분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한 두산팍켈 현물 출자로 예상 부채비율이 안정적이며, 2분기 1,000억원에 육박하 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가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에 급등세 - 아울러, 2대주주였던 삼성중공업의 보유지분 14.2%를 전량 매각됨에 따라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삼보모터스(053700) ▶8,480(+10.13%)	자회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8%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프라코가 거래소로부터 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프라코는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 전문부품 공급업체로, 동사 외에 총 14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음
아이티센(124500) ▶10,650(+8.90%)	2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규모 인력 투자가 올해 마무리된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유지보수사업의 비중이 높 아지면서 2분기부터 흑자전환 기대감에 급등세 - 아울러, 하반기에는 성수기 효과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수혜로 사업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철도 관련주	정부의 전국 철도망 고속화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향후 10년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소식에 강세. 정부는 7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철도망 전반을 확대할 계획 - 대호에이엘(069460, 상한가), 특수건설(026150, +13.37%), 대아티아이(045390, +8.84%), 우원개발 (046940, +7.75%), 세명전기(017510, +3.64%) 등 강세
화장품 관련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국내 화장품 총 생산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K뷰티' 인기를 바탕으로 2분기 실적 개선 기 대감에 강세 - 코리아나(027050, +8.24%), 한국화장품제조(003350, +7.73%), 한국알콜(017890, +3.80%), 한국화 장품(123690, +3.60%), YG PLUS(037270, +3.1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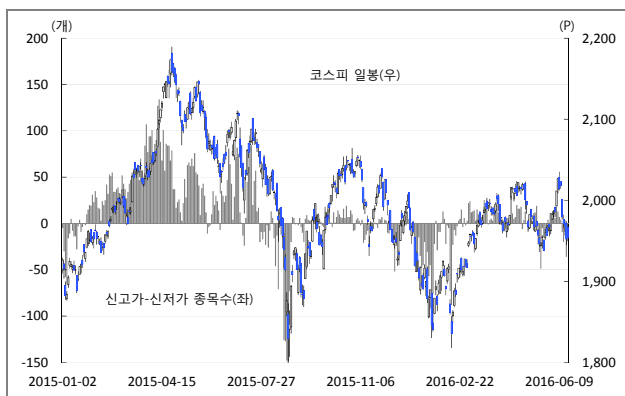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의 유로존 잔류를 주장하던 노동당 하원의원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투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브렉시트 관련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미국증시는 주 후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
-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며 국제 금리 하락세가 계속됐으며, 금 가격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반면,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며 지난 5월 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국내 증시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속 코스피가 장중 1,940P선, 코스닥은 670P선까지 밀려났으나 각각 1,953P, 678P로 한주를 마감
-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M&A를 통한 성장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삼성전자로 에어컨 부품을 공급중인 에센테크는 물량 급증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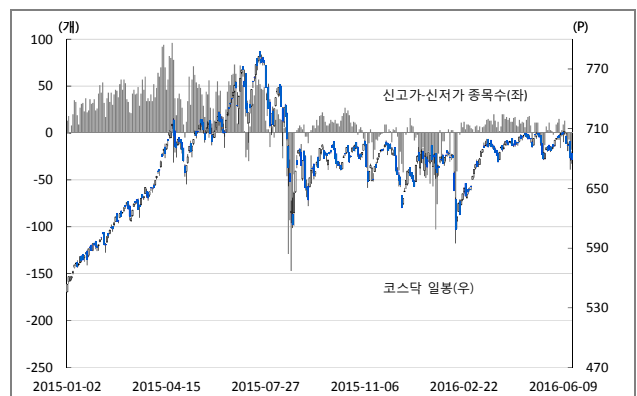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피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1,426,000	1.5	산업재	화학	애경유화	96,500	19.5
	IT	전기전자	지에스인스트루	8,560	121.4	산업재	운송장비	키스톤글로벌	1,655	41.3
	금융	운송인프라	맥쿼리인프라	8,900	1.4	경기소비재	의류신발	SWH	7,500	45.2
	산업재	화학	송원산업	22,450	5.9					
코스닥	IT	반도체	알에프세미	8,820	8.4	산업재	장비생산	갑을메탈	1,100	48.4
	IT	반도체	알파칩스	10,950	16.0	건강관리	바이오	크리스탈	33,500	42.4
	IT	IT부품	에스티큐브	9,500	26.6	건강관리	의료기기	큐캐피탈	1,200	8.5
	IT	전자기기	토폴드	4,360	20.8	건강관리	의료기기	파크시스템스	18,200	8.2
	소재	포장재	한국팩키지	1,975	20.0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삼보모터스	8,480	5.8
	산업재	기계	에센테크	1,800	54.1					

주) 상기 종목들은 6월 17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블루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블루콤 (033560)	16,100 (-1.2)	16,300 (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보다 1.5배 이상 판매가가 높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톤플러스 HBS-1100)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LG전자의 높은 인지도와 음질 및 디자인 등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가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6,420 (-3.5)	6,650 (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amel Tree' 컨텐츠를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의 세계적 출판 유통기업인 IPG사와 스토리북 배분 계약을 맺는 등 컨텐츠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세 둔화로 교육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학원의 과점화에 따른 수혜 예상. 또한 시가배당률 6%를 상회하는 배당매력을 겸비
아비코전자 (036010)	6,220 (-3.9)	6,470 (0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시그널인덕터는 고객사의 중저가폰 내 채용 모델 확대 지속,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따른 NFC용 매출 확대 등으로 고객사 내 안정적 점유율 지속 가능 - 노트북, PC용 DDR4 칩 저항기 매출 성장 및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매출 확대로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 축소 - 16년 1분기 매출액 210억원(+33.7% YoY), 영업이익 23억원(+42.7% YoY)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실적 이어갈 전망
디지털대성 (068930)	3,270 (+3.2)	3,170 (0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과 M&A를 통한 성장 추세 전망. 2015년에도 논술 1위 기업 한우리 인수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오프라인 및 프랜차이즈 학원, 온라인 부문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배당정책 지속
엔에스 (217820)	17,200 (-5.8)	18,250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가 환경개선, 에너지 수요 다변화를 위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완성, 천진 등 중국 메이저 로컬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실적 성장 기대 - 이차전지 패키징과 디계싱공정(전지 내 생성된 가스를 상온에서 배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의 일괄 수주 가능. 턴키방식의 제조설비 구축으로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형 추가 수주 기대
아진산업 (013310)	8,520 (+5.2)	8,100 (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 -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광글라스 (005090)	85,700 (-5.0)	90,200 (05/31)	327	21	40	8,163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홈쇼핑 채널 및 온라인몰 계약으로 판매채널 다각화에 성공. 올해는 로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으로 실적 호전 전망 - 군장에너지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큰 규모의 GE4(250MW)기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2분기부터 군장에너지의 실적 회복 기대 				
LG생활건강 (051900)	1,039,000 (-0.8)	1,047,000 (05/10)	6,148	862	627	36,896	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메르스 기저효과 및 일본 후쿠오카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2분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고가 브랜드인 '후'에 이어 'SU:M'의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 상반기 내 중국에서 'SU:M'의 런칭이 예정되어 있어 브랜드 확대 효과 기대 				
SK머티리얼즈 (036490)	121,200 (-2.3)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한섬 (020000)	40,150 (-0.5)	40,350 (04/22)	710	84	69	3,132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 -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 -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 				
유한양행 (000100)	303,000 (+9.4)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 -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 				
더존비즈온 (012510)	22,500 (+9.8)	20,500 (12/30)	166	39	31	1,057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순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헬스케어-의료기기: 뭣이 중한지 아는 ‘월드클래스 300’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란?

지난 10일 중소기업청은 2016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50개 중소기업을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되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R&D, 전문인력, 자금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정부와 민간 기관으로부터 패키지로 제공받는다.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1) 매출액 400억원~1조원, 2) 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3) 최근 3년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이다.

■ 2016년에 헬스케어 업체 6개 포함된 점 긍정적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월드클래스 기업을 업종별로 나누면 IT, 자동차, 그리고 기계가 전통적으로 강세다. 프로젝트 시행 첫 해인 2011년의 선정기업 31개사를 분류하면 IT 15개사, 자동차 및 기계 9개사, 그리고 기타 7개사로 헬스케어(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전무하다. 이는 그 당시 국내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이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IT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2년에는 3개사(제이브이엠, 루트로닉, 대웅제약)가 처음 헬스케어 업종에서 선정되었으나 2013년에는 휴비츠 1개사만 포함되었다.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에는 4개사(오스템임플란트, 휴온스, 한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그리고 2015년에는 7개사(셀바이오텍, 보령제약, 바텍, 메타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디오, 경인양행)가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6개사(인바디, 인터로조, 레이언스, 뉴트리바이오텍, 마크로젠,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인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발표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당대 성장산업의 지표로서 참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수출비중이 높은 의료기기업체 수혜 예상: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인터로조, 휴비츠

KIS 의료기기업종 커버리지 중에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인터로조, 제이브이엠, 그리고 휴비츠가 있다. 수출 비중(2015년 기준)은 오스템임플란트 49%, 인바디 74%, 인터로조 54%, 제이브이엠 42%, 휴비츠 86%로 5개사 모두 높다. 동 프로젝트의 핵심은 제품 경쟁력과 성장의지를 확보한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로 성장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전문인력,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예상되는데 이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수출 비중이 낮은 업체 대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6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인터로조 그리고 휴비츠를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에스원(012750)

매수(유지)

목표가: 123,000원(상향)

종가(6/16): 101,500원

2Q16 Preview: 2분기 연속 수익 호조세 지속

■ 2분기 영업실적 호조, 시장 예상치 부합

2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가입자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7% 늘어날 전망이다. 보안서비스는 매출이 6.8% 늘어 꾸준히 성장하는 데다 건물관리가 7.5% 증가해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매출 호조와 비용 절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3%, 23.1% 늘어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 양수 3년차인 건물관리와 보안서비스간 시너지 확대 가속

16년 보안서비스 매출액은 가입자가 전년대비 8.6% 늘어 8.2% 증가할 전망이다. 보안 서비스 3사가 수익 위주 경영으로 전환해 가입자 유치경쟁이 완화되고 가입자당 매출액(ARPU)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건물관리 매출도 7.5%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임대관리 사업의 성장성이 높다. 또한 건물관리는 출입 통제시스템, CCTV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과의 시너지 창출이 용이해 에스원의 중장기 성장 견인차가 될 것이다. 16년은 건물관리 사업 양수 3년차로 보안과 건물관리간 시너지가 확대되고 있다. 15년 5월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289만m2)로 16년부터 상품판매가 시작됐으며 통합보안(인력경비), 건물관리 등으로 수혜가 확대될 것이다.

■ 16년, 17년 영업이익은 비용 절감으로 27.9%, 15.6% 증가 예상

16년에 에스원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년, 17년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으로 전년대비 각각 27.9%, 15.6% 늘어날 것이다.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16년은 건물관리 양수 3년차로 무형자산 상각비가 전년대비 8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수익 위주 경영 효과를 반영 16년, 17년 영업이익을 각각 5.8%, 5.2% 높여 추정한다. 영업이익률은 건물관리 양수로 14년 9.5%, 15년 9.6%로 하락했으나 16년 11.4%로 높아져 3년만에 10%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 매수 유지, 목표주가 123,000원으로 상향 조정

에스원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이익 상황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112,000원에서 123,000원으로 높인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 5,141원에 목표 PER 23.9배(과거 3년 평균을 4.7% 할인)을 적용해 산출했다. 향후 2년간 영업이익은 연평균 21.6% 늘어날 것이며 배당은 8%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수익 호전과 경기방어적 성격이 부각될 것이다. 리스크 요인은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635	156	112	3,308	41.2	297	21.5	8.9	2.6	13.1	1.6
2015A	1,800	173	154	4,561	37.9	321	21.9	10.9	3.3	16.4	1.2
2016F	1,951	222	160	4,744	4.0	369	21.4	9.4	3.1	15.3	1.3
2017F	2,099	256	187	5,538	16.7	407	18.3	8.3	2.8	16.0	1.4
2018F	2,228	277	204	6,032	8.9	430	16.8	7.5	2.5	15.6	1.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백화점(06996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0원(유지)

종가(6/16): 131,500원

기저효과 톡톡히 나타나는 중

■ 6월 현재 기존점매출 고성장

현대백화점의 6월 현재 기존점매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리 수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6월은 메르스 영향으로 기존점매출이 2014년 6월 대비 8.0% 줄어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지난해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는 양호한 매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3분기와 4분기에도 지속 가능한 증가율로 볼 수는 없지만, 침체된 소비경기 속에서 상대우위의 추세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메르스 영향은 백화점뿐 아니라 여타 소매업태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현재는 현대백화점에서 기저효과에 따른 기존점매출 반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5월 부진은 행사 기간 차 등에 따른 매출 이연 영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백화점에 대한 2분기와 연간 기존 실적 추정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 송도아울렛, 예상을 넘어서는 호조세

송도아울렛 매출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송도아울렛의 현재 매출(관리기준) 추이는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영업손익 또한 예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4월 개장한 신규점이 5월에 이미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익증가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동대문 시티아울렛 또한 양호한 매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손익 개선폭은 송도아울렛 대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의 신규점은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초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점 또한 침체된 소비환경 속에서도 상대우위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적 개선 지속, valuation 매력 부각 전망

현대백화점의 12MF PER multiple은 9.8배에 불과하다. 유통업종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영업이익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매분기 높아지고 있으며 연말로 갈수록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의 2016F EPS는 22.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점매출의 상대우위와 예상을 넘어서는 신규점 호조에 따른 결과이며, 백화점 업종의 부진한 영업환경을 프리미엄아울렛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2016F PER 10.2배, 12MF PER 9.8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6F PER 16.3배, 12MF PER 15.7배에 해당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552	364	268	11,652	(10.2)	478	10.6	7.7	0.9	8.6	0.6
2015A	1,657	363	241	10,554	(9.4)	489	12.0	8.0	0.8	7.2	0.6
2016F	1,929	436	295	12,936	22.6	592	10.2	7.5	0.8	8.2	0.5
2017F	2,094	484	326	14,314	10.6	662	9.2	6.7	0.7	8.4	0.5
2018F	2,287	535	361	15,834	10.6	727	8.3	6.1	0.7	8.5	0.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인터파크(108790)

매수(유지)
목표가: 22,000원(하향)
종가(6/16): 17,000원

외형 성장의 딜레마

■ 투어 부문, 점유율 상승 통한 입지 강화 도모할 전망

인터파크의 투어 부문은 높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향상을 이끌며 지난해 처음으로 ENT 부문을 상회하는 1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동안 ENT 부문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익에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도맡아 왔다. 인터파크는 경쟁 여행사들이 부킹 엔진 시스템 보완 등으로 티켓 수요를 흡수해 나가자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5월 들어 시행한 외형 확대 전략에 기반해 2016년 투어부문 매출액은 전년대비 3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판매 증가에 따라 프로모션 비용이 늘어나는 변동비 성격의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익성 하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년 투어부문 영업이익률은 13.7%로 전년대비 4.3%p 하락해 투어 영업이익은 145억원(-0.8% YoY)으로 이익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2분기 거래액 증가는 지속되나 비용 부담 수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29억원(+20.3% YoY)과 47억원(-4.8% YoY)으로 예상된다. GMV는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쇼핑, 도서, ENT, 투어 거래액이 각각 17.8%, 0.1%, 5.7%, 25.1% 늘어날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된 투어부문 프로모션 강화 정책 등으로 전사 마케팅비는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할 전망이다. ENT 부문 영업이익은 메르스 기저 효과와 서클컨텐츠컴퍼니(지분율 70%)의 자체공연 라인업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어는 감익(-7.3% YoY)하고 쇼핑과 도서는 각각 영업손실 6억원, BEP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 단기 이익 가시성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은 지속

인터파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9,000원에서 22,000원(SOTP 방식 적용)으로 24.1% 하향한다. 외형과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투어 부문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단행하고 있어 단기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각각 13.4%, 16.9% 낮췄다. ENT 부문 영업이익은 확고한 시장 장악력과 전년 대비 자체공연 라인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1%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파크는 외형에 기반한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기 위해 마케팅 강화 등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단기 이익 가시성은 낮아졌으나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각 부문간 시너지를 키워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은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07	17	11	340	(30.2)	26	67.5	26.4	4.8	8.5	0.4
2015A	402	23	17	518	52.4	33	44.1	20.2	4.4	10.5	1.1
2016F	463	26	17	524	1.2	36	32.4	12.8	3.2	10.0	1.8
2017F	520	33	22	680	29.8	43	25.0	10.4	3.0	12.3	2.1
2018F	578	39	27	817	20.2	50	20.8	8.6	2.8	13.8	2.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항공우주(047810)

매수(유지)

목표가: 110,000원(유지)

종가(6/16): 66,700원

오버행 risk 제거되는 안전 성장주

■ 현대차 보유 지분(5%-1주) 락업 해제. 오버행 risk 크게 완화될 것

최근 현대차가 보유한 한국항공우주(KAI) 지분(5%-1주)에 대한 90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현대차는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가능해졌다. 지난 3월 보유 물량 중 절반인 5%+1주를 주당 70,200원에 매각한 현대차는 향후 잔여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혹은 장내 매각 할 것으로 판단한다. 연초 25%에 달했던 오버행 우려 물량 중 14%가 이미 매각됐고 남은 물량 중 한화테크윈은 KAI 인수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지분 6%의 시장 출회 가능성은 낮다. 현대차 보유 주식(5%-1주)이 대량 출회될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다. 따라서 5% 지분의 시장 출회는 risk 제거 차원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의 전략을 추천한다.

■ 2분기에도 두 자리 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부합

2분기 추정 실적은 매출액 8,180억원, 영업이익 875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0.5%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3.4% 증가하는 것이다. KAI는 2016년 추정 매출액 3.5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17.6조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일회성 요인이 없으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군수(국내 방산)와 완제기 수출(방산 수출)의 생산이 안정화됐고 기체 부품 부문에서도 Airbus 부품 양산이 궤도에 오르면서 두 자리 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기록할 것이다.

■ 수주, 하반기는 많이 나온다

상반기에는 대형 수주건이 없었지만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6~7천억원 규모의 보잉 777x 기체부품 수주 등 일부 입찰 건이 순연(입찰 중, 3분기 발표 예정)되기도 했지만 올해 기대하는 대형 수주 건이 하반기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에서 수리온헬기 3차 양산과 상륙기동헬기 등 약 3조원의 수주가 예정되었고, 완제기 수출은 태국 등 다수의 국가와 T-50시리즈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12월에는 록히드마틴과 함께 추진 중인 8조원 규모의 미공군 훈련기 교체사업(T-X) 관련 RFP(스펙 요구조건, 발주는 내년)가 발표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 할 것이다.

■ 경기 '덜' 타는 기업,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유지

고객사가 국내외 정부 및 보잉, Airbus 등 글로벌 업체다. 매출채권 회수 안정성은 높고,기수주한 물량에 대해 인도 연기 및 취소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낮다. 실적 안정적이 높고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이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0,000원(12MF에 목표 PER 36배, 2015~2017F EPS CAGR 36%)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315	161	111	1,140	23.4	250	34.9	16.8	3.7	11.1	0.6
2015A	2,901	286	181	1,852	62.5	381	42.2	21.1	6.5	16.4	0.5
2016F	3,503	362	264	2,709	46.3	479	24.6	14.5	4.7	20.7	0.6
2017F	4,193	453	333	3,413	26.0	597	19.5	11.7	3.9	22.0	0.6
2018F	5,007	544	400	4,103	20.2	720	16.3	9.9	3.3	22.0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9.06	1,972.03	1,968.83	1,951.99	1,953.40	
	등락폭	-38.57	-7.03	-3.2	-16.84	1.41	
	등락종목	상승(상한)	156(0)	259(1)	324(3)	148(1)	440(2)
		하락(하한)	675(0)	546(0)	460(0)	677(0)	372(0)
	ADR	87.54	85.43	85.29	83.41	87.36	
	이격도	10 일	99.13	98.76	98.67	97.97	98.20
		20 일	100.13	99.76	99.60	98.76	98.81
	투자심리	50	5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43	440	377	439	480
	거래대금	(십억 원)	4,680	5,010	4,695	4,452	4,431
코스닥	코스닥지수	695.61	692.94	694.66	680.25	678.86	
	등락폭	-11.2	-2.67	1.72	-14.41	-1.39	
	등락종목	상승(상한)	252(2)	426(2)	533(3)	186(3)	533(1)
		하락(하한)	842(0)	646(0)	538(0)	920(2)	517(0)
	ADR	102.18	101.71	101.89	99.74	99.51	
	이격도	10 일	99.24	98.85	99.15	97.36	97.48
		20 일	100.07	99.75	100.00	97.95	97.76
	투자심리	8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821	810	869	1176	1235
	거래대금	(십억원)	3,493	3,484	3,422	4,583	3,83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01.6	1,318.9	748.9	265.7	78.9	137.4	48.2	21.7	197.0	72.9
	매도	2,308.9	1,423.2	689.6	191.7	84.8	137.7	77.2	21.1	177.0	20.6
	순매수	-7.4	-104.3	59.3	74.0	-5.9	-0.3	-29.0	0.5	20.0	52.3
	6월 누계	-679.2	1,118.6	-502.2	429.8	-199.2	-587.2	-96.2	-143.7	94.2	62.8
	16년 누계	-2,885.0	3,972.5	-1,922.0	-670.4	2,139.4	-2,095.3	-941.6	-683.0	329.2	834.4
코스닥	매수	3,482.5	259.4	91.2	26.8	7.9	22.4	8.5	2.7	22.9	20.0
	매도	3,477.6	228.8	118.9	31.3	12.1	23.8	18.5	2.2	31.0	27.6
	순매수	4.9	30.5	-27.7	-4.6	-4.1	-1.4	-10.0	0.5	-8.1	-7.6
	6월 누계	463.8	-67.5	-190.8	24.0	-23.0	-111.4	-58.7	-0.1	-21.5	-205.5
	16년 누계	2,971.7	147.5	-2,091.4	-218.9	-119.8	-678.4	-358.8	-105.5	-610.3	-1,027.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8,177	전기전자 -9,636
철강금속	5,977	운수장비 -3,600
운수창고	3,919	의약품 -1,256
POSCO	7,230	삼성전자 -13,925
KODEX 레버리지	4,886	LG생활건강 -3,093
KODEX 200	4,768	KBSTAR 200 -2,170
SK하이닉스	4,402	SK네트웍스 -1,493
롯데케미칼	3,071	KT&G -1,46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723	서비스업	-8,732
화학	11,239	철강금속	-5,785
유통업	7,328	건설업	-3,674
삼성전자	10,073	엔씨소프트	-6,606
롯데케미칼	7,603	SK이노베이션	-5,507
SK하이닉스	6,924	POSCO	-4,504
삼성물산	4,262	쿠쿠전자	-3,486
현대위아	3,380	LG유플러스	-2,78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0,860	운수장비 -2,289
화학	1,546	전기전자 -2,285
유통업	1,499	운수창고 -2,136
KODEX 레버리지	8,541	만도 -3,157
KBSTAR 200	2,670	KODEX 인버스 -2,720
TIGER 헬스케어	1,493	팬오션 -1,735
SK텔레콤	1,355	삼성전자 -1,640
POSCO	1,317	KB금융 -95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236	서비스업 -7,449
미분류	5,054	운수장비 -6,568
기계	2,096	철강금속 -3,509
삼성전자	9,650	SK이노베이션 -4,417
KODEX 200	5,199	현대위아 -2,785
한국가스공사	1,670	유한양행 -2,738
TIGER 200 에너지화학	1,335	POSCO -2,515
삼성물산	1,314	SK -1,642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9,445	서비스업 -14,648
화학	16,735	건설업 -7,868
유통업	14,488	의약품 -7,123
KODEX 인버스	26,837	SK이노베이션 -12,306
삼성전자	25,773	KODEX 레버리지 -9,062
롯데케미칼	15,021	엔씨소프트 -8,255
삼성물산	14,210	만도 -6,295
SK하이닉스	9,580	삼성SDI -5,030
현대모비스	7,265	유한양행 -4,947
현대차	6,495	한화테크윈 -4,892
POSCO	5,089	KODEX 200 -4,421
LG디스플레이	4,462	GS건설 -4,283
한화케미칼	4,344	쿠쿠전자 -3,98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28,603	철강금속 -41,728
운수창고	4,247	화학 -22,539
미분류	2,151	보험업 -13,745
LG전자	9,091	POSCO -41,351
기아차	7,494	롯데케미칼 -12,185
현대글로벌비스	5,439	SK하이닉스 -9,345
한미약품	5,390	현대모비스 -8,413
엔씨소프트	4,890	현대차 -7,564
영진약품	4,723	삼성물산 -7,556
삼성SDI	4,359	LG화학 -6,840
만도	3,351	KB금융 -6,075
한화	3,049	SK텔레콤 -4,862
제일약품	2,884	삼성생명 -4,46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1,235	기계,장비	-1,453
반도체	869	디지털컨텐츠	-1,250
화학	510	도매	-816
SK머티리얼즈	1,242	컴투스	-999
솔브레인	1,160	AP시스템	-959
에스엠	818	파라다이스	-722
테라세미콘	666	에스에프에이	-690
이지바이오	577	메디톡스	-68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1,123	인터넷	-3,538
의료,정밀기기	498	제약	-2,248
IT부품	348	오락,문화	-1,685
제이브이엠	1,339	카카오	-3,520
SK머티리얼즈	611	파라다이스	-2,164
지스마트글로벌	465	메디톡스	-1,601
서부T&D	452	휴젤	-1,440
바이넥스	431	솔브레인	-1,10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95	금속	-901
디지털컨텐츠	259	소프트웨어	-267
제약	256	방송서비스	-126
레고컴바이오	277	갑을메탈	-892
케이디컴	208	KG이니시스	-295
GS홈쇼핑	150	CJ E&M	-276
조이시티	143	알테오젠	-200
아모텍	134	AP시스템	-128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384	운송장비,부품	-1,746
금융	834	오락,문화	-1,552
IT부품	414	반도체	-1,088
솔브레인	1,401	파라다이스	-1,902
한국토지신탁	834	에이치엘비	-1,399
CJ E&M	464	카카오	-637
인선이엔티	338	비아트론	-613
KG이니시스	291	컴투스	-38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832	인터넷	-5,860
음식료,담배	1,157	디지털컨텐츠	-4,482
IT부품	1,012	통신장비	-4,265
SK머티리얼즈	2,428	카카오	-6,028
솔브레인	1,953	파라다이스	-5,233
제이브이엠	1,454	텔콘	-4,950
이지바이오	1,347	메디톡스	-3,572
매일유업	919	컴투스	-3,168
셀트리온	916	AP시스템	-1,880
지스마트글로벌	848	휴젤	-1,679
제이콘텐트리	814	한국토지신탁	-1,193
에스엠	805	에이치엘비	-1,058
에스앤에스텍	712	코스온	-98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592	방송서비스	-2,718
디지털컨텐츠	4,394	종합건설	-1,511
컴퓨터서비스	3,516	IT부품	-1,061
CMG제약	3,060	셀트리온	-4,881
오픈베이스	2,439	케어젠	-3,421
뉴트리바이오텍	2,388	메디톡스	-2,656
휴젤	1,907	CJ E&M	-2,360
컴투스	1,545	에스티큐브	-2,288
오스템임플란트	1,220	제이브이엠	-2,154
대화제약	1,074	동서	-1,287
휴메딕스	1,043	디오	-1,247
SK머티리얼즈	967	크루셀텍	-1,244
텔콘	948	솔브레인	-1,14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27 일	삼진제약 26 일
한미약품		20 일	한솔케미칼 24 일
도화엔지니어링		12 일	CJ제일제당 18 일
한국석유		11 일	휴켄스 16 일
AJ네트웍스		10 일	현대그린푸드 14 일
KPX케미칼		10 일	대성산업 13 일
SK하이닉스		10 일	SK가스 12 일
KINDEX			
일본인버스(합성,H)		9 일	유한양행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양이엔지		31 일	오스템임플란트 18 일
티비씨		23 일	컴투스 16 일
픽셀플러스		19 일	안트로젠 14 일
조이시티		16 일	뉴트리바이오텍 13 일
예림당		13 일	동진씨미켄 13 일
MPK		11 일	코메론 12 일
인탑스		10 일	JYP Ent. 12 일
등부제4호스팩		9 일	동성화인텍 1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199,941	삼성전자 125,116
SK하이닉스		112,235	TIGER 200 84,897
KCC		96,900	현대글로벌비스 33,069
롯데케미칼		72,307	KCC 25,686
현대모비스		38,688	기아차 23,036
현대차		32,191	아모레퍼시픽 21,055
삼성에스디에스		31,067	삼성SDI 16,727
일양약품		18,684	KODEX 200 16,537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머티리얼즈		15,527	컴투스 10,853
연우		10,241	오스템임플란트 8,805
솔브레인		5,295	CMG제약 6,990
한국토지신탁		4,635	대화제약 4,981
아스트		3,580	JW신약 4,460
아프리카TV		3,497	동진씨미켄 4,344
이지바이오		3,331	주성엔지니어링 3,963
서울반도체		3,172	SK머티리얼즈 3,52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미분류		11,192	2,151 13,343
운수창고		2,643	4,247 6,890
기계		4,164	1,524 5,688
KODEX	인버스	26,837	935 27,772
한미약품		1,902	5,390 7,292
한화케미칼		4,344	1,757 6,101
일양약품		2,882	2,535 5,418
영진약품		18	4,723 4,741
삼성전기		1,519	1,224 2,743
한미사이언스		1,965	602 2,567
화승인더		688	1,742 2,430
한국전력		198	2,115 2,312
두산인프라코어		375	1,610 1,98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담배		1,157	1,984 3,141
전문기술		245	2,345 2,590
통신서비스		459	600 1,059
SK머티리얼즈		2,428	967 3,394
CMG제약		87	3,060 3,147
오픈베이스		24	2,439 2,462
이지바이오		1,347	138 1,485
지스마트글로벌		848	585 1,434
바이넥스		536	885 1,421
오스템임플란트		115	1,220 1,334
주성엔지니어링		578	738 1,316
에스엠		805	487 1,292
휴온스글로벌		200	897 1,09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화	22 일	퍼시스	50 일
금호산업	21 일	폴무원	40 일
새론오모티브	20 일	유니온	32 일
LG유플러스	16 일	휴스틸	30 일
한솔홀딩스	16 일	유화증권	26 일
코라오홀딩스	14 일	세원정공	23 일
미래에셋생명	14 일	코오롱머티리얼	19 일
신세계 I&C	13 일	에넥스	1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미스터블루	22 일	휴맥스홀딩스	37 일
KCC건설	16 일	대동기어	37 일
포스코켐텍	1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34 일
와이솔	14 일	NICE평가정보	33 일
코메론	14 일	서연탐매탈	27 일
파인디지털	14 일	서원인텍	25 일
덕산네오룩스	12 일	와이비엠넷	22 일
골프존유원홀딩스	12 일	신라에스지	2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06,497	POSCO	-83,072
KODEX 레버리지	-203,714	롯데케미칼	-51,883
TIGER 200	-86,097	현대차	-48,779
기아차	-66,417	신한지주	-38,322
SK이노베이션	-47,696	LG화학	-38,133
한국전력	-46,113	삼성생명	-35,794
현대글로벌비스	-40,462	KB금융	-27,962
아모레퍼시픽	-37,494	롯데쇼핑	-21,94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제이브이엠	-13,717	메디톡스	-15,861
메디톡스	-12,754	카카오	-12,739
파라다이스	-11,506	셀트리온	-11,904
카카오	-7,876	디오	-7,282
CJ E&M	-6,006	CJ E&M	-6,260
피에스케이	-4,758	테스	-5,830
AP시스템	-3,935	안국약품	-4,992
에스에프에이	-3,547	크리스탈	-4,37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철강금속		1,297		-41,728			-40,431
서비스업		-14,648		745			-13,902
기타금융업		-617		-10,020			-10,637
KODEX 레버리지		-9,062		-2,473			-11,536
LG생활건강		-1,618		-3,653			-5,271
KT&G		-1,607		-3,441			-5,048
현대제철		-713		-3,216			-3,929
S-Oil		-275		-3,474			-3,749
SK		-1,065		-2,673			-3,738
효성		-325		-2,739			-3,064
대림산업		-1,091		-1,694			-2,785
미래에셋대우		-634		-2,146			-2,780
동부하이텍		-1,954		-703			-2,657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5,860		537		-5,323
방송서비스			579		-2,718		-2,139
종합건설			-493		-1,511		-2,004
메디톡스			-3,572		-2,656		-6,228
AP시스템			-1,880		-509		-2,389
한국토지신탁			-1,193		-397		-1,590
GS홈쇼핑			-373		-1,142		-1,515
아스트			-581		-803		-1,384
보광산업			-905		-379		-1,284
서희건설			-288		-914		-1,202
에스에프에이			-967		-187		-1,154
큐리언트			-70		-1,008		-1,079
테고사이언스			-282		-639		-92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645	15,553	
SK하이닉스	347	10,295	
삼성전자	5	7,207	
SK텔레콤	28	5,907	
현대모비스	21	5,621	
POSCO	26	5,353	
현대중공업	50	5,278	
삼성물산	44	5,18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메디투스	20	8,976	
카카오	49	4,481	
디오	51	2,444	
셀트리온	19	1,764	
바이로메드	12	1,667	
오스템임플란트	20	1,507	
코미팜	41	1,442	
에코프로	88	1,2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109	5,789,795	
현대중공업	9,985	1,048,413	
한미약품	1,631	1,044,056	
NAVER	1,408	987,067	
KT&G	7,780	984,191	
호텔신라	14,918	939,820	
SK하이닉스	27,631	819,255	
POSCO	3,902	796,01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107	2,270,846	
카카오	12,525	1,142,278	
바이로메드	2,060	293,342	
로엔	2,956	216,963	
메디투스	395	170,396	
파라다이스	10,922	164,923	
코미팜	3,690	126,566	
이오테크닉스	1,297	122,82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비금속	5,253	화학	-5,425
보험업	3,371	증권	-3,973
전기전자	2,244	건설업	-2,428
한온시스템	2,671	미래에셋증권	-4,147
동양	2,626	금호타이어	-3,805
쌍용양회	1,784	두산중공업	-2,961
한솔홈데코	1,771	KODEX 200	-2,213
우리은행	1,477	호텔신라	-2,035
두산인프라코어	1,111	맥쿼리인프라	-1,534
한올바이오파마	993	JW홀딩스	-1,502
미래에셋대우	877	SKC	-1,203
메리츠화재	862	한솔홀딩스	-1,049
KB금융	792	대우건설	-981

KOSDAQ			
순 증		순 감	
전문기술	2,348	전문건설	-231
반도체	1,070	섬유, 의류	-224
비금속	962	운송장비, 부품	-111
포스코 ICT	2,457	서울반도체	-456
원익홀딩스	853	일경산업개발	-390
유진기업	827	지엔코	-292
한국토지신탁	740	비아트론	-280
에스에이엠티	483	아스트	-278
아이이	400	셀트리온	-173
넥슨지티	323	위노바	-158
파워로직스	318	셀루메드	-135
CMG제약	313	삼천리자전거	-135
3S	307	매일유업	-13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외국인	3,972.5	1,118.6	-335.0	-148.0	-105.8	-21.1	44.3	-104.3
기관계	-1,922.0	-502.2	-461.9	-73.8	-180.6	-57.2	-209.6	59.3
(투신)	-2,095.3	-587.2	-79.6	-77.5	-46.2	57.7	-13.3	-0.3
(연기금)	548.6	97.6	180.1	-16.4	60.4	76.9	42.8	16.5
(은행)	-683.0	-143.7	-22.4	-8.2	-4.9	2.4	-12.2	0.5
(보험)	2,139.4	-199.2	-51.5	-28.6	-21.8	7.2	-2.5	-5.9
개인	-2,885.0	-679.2	677.7	173.7	226.9	168.1	116.4	-7.4
기타	834.4	62.8	119.2	48.1	59.5	-89.8	49.0	52.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6/10(금)	6/13(월)	6/14(화)	6/15(수)	6/16(목)
KOSPI	2,011.3	1,915.6	1,961.3	2,017.6	1,979.1	1,972.0	1,968.8	1,952.0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4,366.8	23,768.1	23,874.8	24,233.1	24,218.3
(증감액)	-3,802.5	1,630.7	6,853.1	695.3	-598.7	106.7	358.3	-14.8
(회전율)	29.9	34.0	28.8	35.2	34.4	35.6	33.5	37.3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383.5	-803.4	29.3	610.1	243.6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44.3	3,232.5	3,252.8	3,253.7	3,273.8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960.6	3,987.4	4,006.8	4,000.2	4,005.7
미수금	92.9	117.6	151.0	115.6	144.2	132.5	142.0	153.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9(목)	6/10(금)	6/13(월)	6/14(화)	6/15(수)
전체주식형	77,624	-3,291	-1,214	-173	-330	-26	59	-205
(ex.ETF)		-2,380	-951	-168	-326	-127	-48	-25
국내주식형	59,415	-3,541	-1,118	-172	-301	-21	65	-198
(ex.ETF)		-2,629	-855	-167	-298	-122	-42	-18
해외주식형	18,209	250	-96	-1	-29	-5	-6	-8
(ex.ETF)		249	-96	-1	-29	-5	-6	-8
주식혼합형	8,318	23	-15	-2	-9	29	1	-2
채권혼합형	30,144	-607	-233	-10	-8	-81	-116	2
채권형	100,772	13,604	904	-117	59	63	39	35
MMF	119,074	25,072	3,167	-4,482	1,146	2,183	637	1,06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한국	3,437	957	-286	-126	-90	-18	38	-89
대만	4,460	1,601	-218	-168	89	127	-266	-
인도	2,837	652	28	53	-14	-12	-	-
인도네시아	498	179	8	-30	54	-18	2	-
태국	773	257	-16	-12	-2	25	-27	-
남아공	-1,875	1,613	496	173	124	199	-	-
필리핀	435	106	-20	-9	-7	-11	7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회사채 (AA-)	2.11	1.78	1.80	1.80	1.78	1.79
회사채 (BBB-)	8.06	7.82	7.84	7.84	7.82	7.84
국고채 (3년)	1.66	1.31	1.34	1.34	1.32	1.33
국고채 (5년)	1.81	1.39	1.42	1.41	1.38	1.40
국고채 (10년)	2.08	1.62	1.64	1.62	1.58	1.60
미 국채 (10년)	2.27	1.61	1.61	1.57	1.58	-
일 국채 (10년)	0.27	0.16	0.16	0.18	1.19	-
원/달러	1,172.50	1,173.40	1,173.20	1,173.30	1,171.40	1,172.70
원/100엔	972.63	1,102.30	1,106.59	1,107.41	1,128.96	1,130.21
엔/달러	120.55	106.45	106.02	105.95	103.76	103.76
달러/유로	1.09	1.13	1.12	1.12	1.11	1.11
DDR3 1Gb (1333MHz)	1.00	0.86	0.86	0.86	0.86	-
DDR3 2Gb (1333MHz)	1.13	0.90	0.90	0.90	0.90	-
NAND Flash 16Gb (MLC)	1.46	1.38	1.39	1.41	1.41	-
CRB 지수	176.81	193.74	193.04	192.57	189.72	-
LME 지수	2,217.9	2,265.3	2,247.6	2,289.7	2,249.5	-
BDI	478	609	608	604	598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8.88	48.49	48.01	46.21	-
금 (달러/온스)	1,060.00	1,280.80	1,287.15	1,283.30	1,310.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3	14	15	16	17
中> 5월 광공업생산 YoY (6.0%, 6.0%, 6.0%) 5월 소매판매 YoY (10.0%, 10.1%, 10.1%)	美> 5월 소매판매 (0.4%, 0.4%, 0.8%) 日> 4월 광공업생산 MoM (0.5%, n/a, 0.3%) 유럽> 4월 산업생산 MoM (1.1%, 0.8%, -0.7%)	中> 5월 신규대출(~15일, 십억위안) (985.5, 750.0, 555.6) 5월 M2 통화공급 YoY(~15일) (11.8%, 12.5%, 12.8%) 韓> 5월 실업률 (3.7%, 3.8%, 3.7%) 美> 5월 광공업생산 MoM (-0.4%, -0.2%, 0.7%)	美> FOMC 기준금리 결정 (0.25%, 0.25%, 0.25%)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0%, 1.1%, 1.1%)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0%, -0.10%, -0.10%) 유럽>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1%, -0.1%, -0.1%)	美> 5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50, 1,172) 5월 건축허가(천건) (n/a, 1,145, 1,130)
20	21	22	23	24
日> 5월 수출 YoY (n/a, -10.0%, -10.1%)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55, 5.45)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65, 619) Powell 연준이사 연설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51.4, 51.5) 독일> 6월 마켓 독일 제조업 PMI (n/a, 52.0, 52.1)	영국> Brexit 국민투표 美> 6월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 (n/a, 94.1, 94.3) Kaplan 연준이사 연설
27	28	29	30	1
	美> 1분기 GDP QoQ 잠재	美> 5월 개인소득 5월 PCE 5월 미결주택매매	韓> 5월 광공업생산	韓> 6월 수출 美> 6월 ISM 제조업지수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유럽> 6월 마켓 제조업 PMI 독일> 6월 마켓 제조업 PMI 日>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